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교회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을 지킨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유아·유치·유년·초등부 등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교회 각 부서에서는 5월 중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스태반회에서는 4일(화)과 5일(수) 1박 2일간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부부동반 영성수련

회를 갖는다.

유아부에서는 13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자녀의 신앙교육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부모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청년부는 연합체육대회를 5일(수) 한양여자대학 운동장에서 가진다.

한편 해마다 5월 중 개최하던 가족찬양대회가 올해부터 다락방찬양대회로 변경 실시된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서울교회 온 가족이 한 가족임을 확실히 되길 기

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7일(금)의 예선과 9일(주일)의 결선에 앞서 오늘 III부 예배 후 옥탑층에서 다락방찬양대회 참가 팀의 대표들이 모여 순서를 추천하게 된다.

5월 교회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2일	어린이 주일
2일	중등부 헌신예배
2일	제직회

(장로·안수집사 추천에 관한 건)

매주 월요일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강남YMCA)

매주 월-목요일

서울성경대학 및 음악교실 강좌

7일	다락방 찬양대회 예선
9일	아버지 주일
9일	다락방 찬양대회 결선
16일	공동의회(집사·권사 선출)
20일	남선교회·여전도회 연합기도회
30일	공동의회(장로 선출)
30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새 예배당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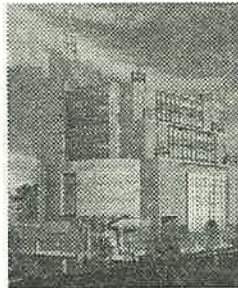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에 따르면 지하 굴토 작업으로 현재까지 15톤 덤프 트럭으로 3052차의 잔토를 반출했으며 이미 바닥이 나와 4단 사보설치, 5단 부위 토류판 설치 그리고 일부 암반 파쇄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처럼 공사가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 헌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위원

들은 매주 토요일 현장에 모여 기도와 회의를 거듭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로·안수집사 오늘 공천

찬양예배 후 제직회 개최... 선출은 30·16일

장로와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배수 공천이 오늘 찬양예배후 열리는 제직회에서 있게 된다.

오늘 실시되는 공천은 우리 교회 제6대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장로 선출 투표는 이달 30일, 집사 선출 투표는 이에 앞선 16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권사 50명의 후보 추천은 이미 지난 4월 29일 당회에서 마쳤으며 이달 16일 선출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헌법 정신을 따라 장로 후보대상을 ①본 교회 안수집사 ② 협동장로 ③ 권사로 하고 이들 중 70세 미만인 무흠신자로

정했다.

본 교회 제 6대 장로 후보 대상 평단은 다음과 같다. (기나다 순)

① 안수집사

김세재 김영주 김인수 김형택 나종영 류중관 맹선재 박두영 박정선 백수남 서춘식 신용식 안의경 오광환 오형철 우지원 윤찬오 이계홍 이관규 이만생 이복규 이상호 이승우 이완형 이태상 임상현 임훈규 조성식 최용걸 최형렬 한길동 허희철 홍성주 홍정선 황정욱

② 협동장로

민순구 전기집

③ 권사

시무권사 전원

참고로 장로와 안수집사의 자격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안수집사의 자격=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 2편 8장 21조에 의하면 안수집사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고 무흠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70세 미만(30년 생은 포함) 30세 이상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단 이명해 은 타교회 직분자는 본 교회 등록 2년이 된 자로 한다고 당회는 밝히고 있다.

* 장로의 자격=동 헌법 2편 6장 40조에 의하면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야 강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21장 11 - 12절

두마는 예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에게 붙여진 예언자적 별명으로 죽음과 같이 고요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으로 낮아지고 백성들의 자존심은 짓밟혀서 그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천박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좌절감에 빠져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국가의 독립은 전혀 불가능하고 현실은 답답하여 갈 길이 암담한 두마를 밤에 비유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파수꾼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향하여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캄캄한 밤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아침은 언제 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 이사야는 평안하게 저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지만 다른 밤이 또 올 것이다" (12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강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마를 향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 28:67).


1. 아침이 오니 밤도 오리라

역사적으로 두마는 이스라엘과 함께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두마가 언제 아침이 오느냐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어 앗시리아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핍박받던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에게 더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 밤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파사를 일으키시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아침이 왔습니다. 이들은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앗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파사에 망하고 또한 파사는 헬라에 망했습니다.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헬라는 로마에 망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사 21:11 - 12)



이종운 목사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가 없는 한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 될 뿐입니다.

2.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 올지니라

두마는 선지자에게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습니까?" 라고 두 번 반복하여 묻습니다. 선지자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 될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잠시 복을 누리는 것 같으나 더 무서운 밤을 맞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죄를 단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 40:12).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수고의 땀만 흘리는 것에 불과할 뿐 고통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 5:29). 회개는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한 눈이라도 빼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상한 심령을 고

치는 것이며(시 51:17), 회개하면 위로와 만족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지만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3.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지금 영적 시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시계는 몇 시나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 줍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2 - 3). 우리는 자신의 영적 시계를 보며 만일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오늘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는 밤낮으로 해야 합니다. 낮에는 많은 인파가 다니기 때문에 파수가 필요하고 밤에는 정적 때문에 파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파수는 각자 자기 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를 찾고나서

지내온 나이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

김일석 (새가족)

서울교회를 통하여 나의 유년을 생각하는 까닭은 내 삶의 여정과 믿음 생활 그리고 세속의 내 나이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향땅 초등학교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약보없이 한지에 1, 2, 3절 가사만 적어 놓은 찬송가. 흥조면 얼굴로 열심히 아이들과 어울려 가르쳐 주시던 주일학교 여선생님. 저녁예배 시간을 놓칠새라 이 삼십 분을 줄곧 뛰어서 교회를 향하던 중학시절의 그 열심. 가난뱅이 법대생과 부잣집 딸 해원이 주인공인 연애소설 한 권 읽고 사랑병에 빠져버렸던 고교시절. 유약하고 헬썩한 예수쟁이 모습이 탐탁찮았던 대학시절. 등등.

그러나 그 좌충우돌 청춘의 시절에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를 불러 가시더니 누이동생마저 데려 가셨다. 불혹의 나이 이전에 내게 주님을 보이신 사건이었다. 아버지는 돌연 병으로 돌아가시고 누이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뒀으니 인생의 마지막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인생이 연약함을 알게 됐고 웅장한 생명의 소리를 내며 돌아나는 풀잎 하나에도 눈물지를 줄 알게 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바람이 다정히 뺨을 스치면 "아, 주님 숨결이 구나" 봄꽃 향기 싱그런 수목이 뿜는 그 향긋함에 "아, 주님 냄새야" 하다가 벌써 오십 나이를 바라보게 됐다. 이 장년의 나이에 서울교회의 새 가족이 됐다.

깊은 믿음의 선배들, 일사분란한 봉사의 모습들이 처음에는 지나친 조직력이라는 생각도 일견 들기는 했다. 그러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모습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또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은 이전에 어지럽던 신앙의 편견들을 명쾌하고도 은혜롭게 다듬어 소록 소록 심령에 쌓아주셨다.

이 모든 것으로 해서 주님이 내 나이를 사랑하도록 돌보셨듯 서울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다락방 찬양대회를 준비하며

놀라우신 주님 찬양!

서경숙(집사, 가락다락방)



설레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락방 예배조차 잘못 드리던 곳에서 4살 바기 꼬마부터 70여 세에 이르는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말이다.

올해 초 다락방장에 임명되어 이곳 다락방을 섬기게 되었을 때만 해도 다락방 예배조차 드리기가 힘든 곳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우둔한 기도를 들으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구역원들이 기쁨으로 모이게 해주셨다.

처음엔 이웃한 웨밀리·방이 다락방에 각각 1명씩 살고 있어 그곳 식구들까지 합류하여 드리

기 시작한 다락방 예배에 지금은 지역장으로 오신 권사님, 이사오신 장로님 맥 자녀손까지 모두 10여 가정으로 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다락방 찬양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결속의 기회로 생각하고 참가를 위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다락방 식구 모두가 호응하고 더욱이 다른 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 어떤 집사님은 음악지도와 아울러 자유곡도 우리 교회 신문 이름을 따서 '순례자'로 정해 주셨다.

한 가정에서 한 가지씩 준비한 만찬을 대하며 이 일을 준비하려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일찍 귀가하시는 남 집사님들, 때마다 자원하여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80세를 바라보에도 다락방 예배만은 꼭 참석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다락방 식구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가정들로 성장해가기를 간구한다.

깊은 밤, 연습을 마치고 다음 장소에서 또 있을 연습을 기대하며 아파트 문을 나서서 내 발걸음에는 콧노래가 덧붙여진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주 예수"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몇 가지”

문형미(집사, 4교구)

나는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게 내 마음 속에 바로 심어지기 때문에 나는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가끔은 지쳐 낙심할 때도, 세상의 물결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는 때에도 나를 끝바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교회학교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맑은 주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이른 시간부터 바쁘게 달려와 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볼 때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유아부에 아이를 맡기고 갈 때면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아이를 업고 계시는 분, 안고 계시는 분... 처음에는 칭얼거리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품에 안겨 편안히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팔에 안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사랑부에서 사랑없이 정말 감당키 어려운 일들을 즐거움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면 주님 앞에서 내 모습도 저렇게 고침받아 가는 것이리라는 생각에 가슴 뭉클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해 있는 것,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연유로 인해 나는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영희(초등부)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절에도 가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는 못했고, 제 마음 속에 너무 쉽게 유혹의 악마를 맞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행동은 저의 생활의 한 부분이던 교회에서 쉽게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유혹을 받고 또 그것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만큼은 언제나 비워두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한 가운데 편안히 앉아계십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이 올 때에는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믿음을 주

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나를 유혹하는 악마를 나가게 해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렵니다. 13년 동안 많이 바뀌었던 저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영원한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구주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가 되고싶어요”

김보연(초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치고 주를 따르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면 서로 다투지 않게 될 것이며 질투는 없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이해하며 돕고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지키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기도시간에는 눈을 뜨고, 찬송은 교회에서만 부르고 H. O. T.와 핑클, SES의 노래를 더 좋아하고 TV프로그램은 빠지지 않고 챙겨 보면서 성경책 보는 일은 쉽게 미루어 버리는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초등부의 한 사람으로 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4일(화) 청담교회당서

서울 강남노회 제 24회 정기회가 4일(화) 청담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를 비롯,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오정수·이영기·성준경·김영준·김상철 장로가 총대로 참여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6일(목)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를, 7일(금) 기독교교도소설림추진위원회회를 각각 소집.

- * 신순우 집사(4교구, 예배위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미국지사 감사차 26일(토)부터 일주일 간 출국.
- * 이번 주 식사는 이계홍·성순자 집사가 정에서 제공.
- * 중등부는 3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

이사

- * 임선철·이영주 집사 강남구 역삼동으로 (☎ 552-0480).
- * 나중영·이은희 집사 서초구 잠원동 우성아파트로 (☎ 599-9280).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⑤ 5월 3일(월)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디아코니아목회와 교회 성장 (성종현(장신대))
- ⑥ 5월 10일(월) -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교회 교육 모델 (은준관(연세대))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감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2.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와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